

그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엄마 앞니 임플란트 두세개 심는 날예요. 척추 시술을 받으시기도 해야하는데 임플란트 수술과 앞니없이 지내실 두 세달을 잘 견디셔야 해요.

엄마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정이길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파킨슨 약들도 세 가지나 한꺼번에 복용하시고 있어서 그것도 의사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해요. 약부작용이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니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제가 오고 나서 좀 더 잘하시고 계시니 다행이지만, 척추 문제로 두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고 있어 걷는 것이 많이 힘드시답니다.

아버지도 척추 협착으로 주사를 맞으신 적 있다하셔서 두 분의 바른 자세를 위한 연습을 계속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단기 기억 상실이 자주 나타나지만 아직 교회 예배에 가시고, 어제는 성탄 예배도 혼자 택시타고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은 버스 타시고 돌아 오셨다네요.

데이케어센터같은 어린애들 놀아주듯 하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하시지만, 치아와 척추 문제가 조금 완화되면 시도해보려 합니다. 집에서 누워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니 근육 소실이 심각합니다.

의사 샘들의 정확한 진단과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엄마를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이 확고해지시도록 기도부탁드려요.

2017년 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두 번의 한국 단기 방문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과 건축시작으로 한국 방문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연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겨우 들어온 이번 방문 동안 아직 저를 알아보시는 엄마를 돌봐드리는 시간과 모두가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동역해주신 신실하신 교회들과 기도 동역자들과의 만남은 시간들이 제게 참으로 소중한입니다. 만남들이 저의 소진된 에너지에 많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월로 내년 3월 말이나 길면 4월 초까지 방문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2023년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길 그리고 2024년 새해 맞이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